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신설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농식품부·해수부, 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

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농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의 재이양·재직과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

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에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압류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어업인들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분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재)전북은행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11일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에서 제35회 '2020 JB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꽃을 보듯 나를 본다'... JB인문학 강좌

김제 덕암정보고 2학년 학생들 대상 서예가 이정화 초청

(재)전북은행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경규)은 지난 11일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에서 제35회 '2020 JB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좌는 덕암정보고등학교 2학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해를 품은 달, 뿌리깊은 나무 등 각 종 사극의 서신을 대필한 작가이자, 최근 '일히일비하는 그대에게'를 출간한 인종 이정화 서예가를 초청해 '꽃을 보듯 나를 본다'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서예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따라 일곱 살에 처음 붓을 잡았고 어

릴 때부터 서예를 해 글씨 안에 감정을 담지 못했으나 각종 작품에서 대필을 하며 글씨에 감정을 담아보는데 이들에게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해줄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후 대학시절에는 서예를 통해 아리랑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세계 일주를 다니며 글씨를 쓰고 느꼈던 감정들을 덕암정보고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정화 강사는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글씨를 찾고, 방향없이 변화하길 바란다"며 직접 글씨를 칠할 위에 써내려가는 퍼포먼스까지 펼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 분야 ISO 국제표준 동향 정보를 '한눈에'

식품연, 온라인 서비스 제공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종준, 이하 '식품연')은 농식품 분야 ISO 국제표준 제·개정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연'이 구축한 온라인(On-line) 서비스에서는 농식품분야 ISO 국제표준 제·개정 동향, 국제표준 제·개정 표준화 활동 대응의견, 국내·외 식품 이슈사항 및 국제 식품안전인증제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업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농식품분야 ISO 국제표준 전문가 그룹의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식품 이슈사항 및 국제 식품안전인증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능동적인 식품안전 보증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 김영찬 본부장은 "국내·외 국제 식품안전인증제도 가이드라인 안내 등 컨텐츠 다양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식품안전 관리기술 향상 및 품질안전 보증능력을 향상시켜 우리식품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약자로, 1947년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국가표준화기관 연합체이다. /김윤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택시장 안정까지 대출규제 위반 점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꿈이룸' 전주점이 교육 운영 우수 점포로 선정돼 타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진행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꿈이룸 전주점, 창업 교육의 요람 역할 '톡톡'

타 시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관계자들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함께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이 교육 운영 우수 점포로 선정돼 타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진행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꿈이룸' 전주점에서는 이날 전국 15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실무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지역본부 담당자 등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실무자 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경진원이 가지고 있는 '창업 교육 운영 노하우'와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 사업 역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등 창업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창업의 긍

정적인 미래를 먼저 만나는 시간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준비된 창업,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50시간의 일반경영교육 및 업종전문교육부터, 1:1 멘토링, 16주 점포 체험 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 일원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창업지원사업이다.

현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북 11기 교육생 8명이 150여 시간의 이론 교육을 마치고 점포체험 교육 중에 있다. 교육생들은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에서 누적 매출액 9천만 원 달성 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운영 역사상 이례적인 기록을 갱신하며 점포체험 교육 막바지에 진입, 그 열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교육생에게 점포체험 교육이 종료 후 더 큰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 융자

와 사업화 자금 적격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온라인 마켓에 진입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에게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힘든 시기"라며, "경제활황이 좋지 않지만, 소상공인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진원도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오는 27일까지 전북 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이 종료되면 서면 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15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 9월 중순에 입교할 예정이다. 본인만의 기술력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경진원 소상공인팀(063-717-1309)으로 문의해 교육 및 성공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수해피해지역 빠른 복구 '총력'

농진청,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안전관리 기술 지원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병해충 방제와 영농현장 기술 지원, 수해지역 일손 돕기를 추진해 빠른 복구를 돕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6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마의 영향으로 비, 시설재해, 과수 등에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이달 1일부터 중부와 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일손과 농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이다.

우선 농진청은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점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모아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나서 예정이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한 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해 시기별 주요 병해충 방제 및 물관리 등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과 추진단지별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은 긴 장마와 8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생육상황과 품질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특작 분야 현장기술지원반(27개반 69명)을 편성해 병해충 방제, 토양관리, 시설 하우스 환경관리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인삼 주산지인 9개 시·군(음성, 춘추, 제천, 금산, 진안 등)에는 기술지원반(3개반 12명)이 투입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삼농협과 합동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농진청은 현장기술지원반 운영을 위해 지난 10~11일까지 6개반 12명으로 구성된 농업전문가를 각 도(경남·북, 제주 제외)에 파견해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작목별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과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별도의 영농현장 컨설팅 요청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마 이후 품목별 기술지원 대책' 등 영농지도 자료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하고, 비대면 영농기술지도 콘텐츠(카드뉴스, 유튜브)를 농촌진흥청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 중이다.

김경규 청장은 "농가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와 영농기술지원을 위해 가용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파견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수해복구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호우 피해 중기·소상공 지원

전북중기청, 유관기관과 합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기청,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등 도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피해는 주로 남원, 장수, 진안, 순창 등에 집중됐으며, 현재까지 중소기업 5개, 전통시장 9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로 영업시설, 기계설비, 제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융자·보증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자금 우대지원이 가능하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기업이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의 특별보증비를 상향(85%→90%)과 보증료 우대(0.5%→0.1%, 고정

보증료를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여 지원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융자는 중진공에서 피해업체당 금리 1.9%로 최대 10억원(5년)까지 지원(3년간 15억원)하며, 애플리케이션 제도를 통해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현장 확인 후 7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특별보증비를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를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까지 3년상환→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정부, 시세 교란 '부동산 유투버' 특별점검

홍남기 부총리 "새 유형 교란행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유투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 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 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신고된 수도권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

획이다.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제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